논어 9편 자한 21장 · 원문·풀이

子謂顏淵，曰：「惜乎！吾見其進也，未見其止也！」

독음 · 자위안연 왈 석호 오견기진야 미견기지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안회가 나아가는 모습만 보고 멈추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며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謂 고할 위 위 / 顏 얼굴 안 / 淵 못 연 연

曰 가로 왈 / 惜 아낄 석 석 / 乎 어조사 호 / 吾 자기 오 오

見 볼 견 견 / 其 그 기 / 進 나아갈 진 진 / 也 어조사 야

未 아닐 미 미 / 止 발 지 지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